

강의계획서

과목명	철학으로 예술 읽기				
담당교수	조창오	이수구분	전공선택	학점/시수	3/3
유형	교과 유형	이론	이론과 실습		실습, 실기
		0			
유형	수업 유형	캡스톤디자인	교양-전공상호 인정수업	융복합 수업	외국어전용
			0		
강좌의 개요	<p>보통 예술이라 하면 미술관이나 고급 콘서트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순수예술, 고급예술만이 예술이고, 대중문화에 속하는 대중예술은 예술이 아니라는 의견이 깔려 있다. 본 강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향유하는 대중예술을 예술로 보고자 한다. 이때 우리는 대중예술을 여러 가지 철학적 이론을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중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중예술을 향유하는 의미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p>				
강좌의 목표	<p>단순히 오락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대중예술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중예술을 우리가 하나의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대중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다양한 철학이론들을 대중예술 현상과 연결할 것이다. 이러한 거리두기와 연결짓기를 통해 우리는 인문학적 사유의 상상력을 경험하게 된다. 인문학적 사유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그것의 장점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의 또 다른 부분을 들춰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p>				
강좌 운영방법	<p>본 강좌는 하브루타 방식에 의해 진행된다. 2인의 학생이 매 수업마다 해당 텍스트를 읽은 후 상호 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켜야 한다.</p>				
학습 준비사항	<p>모든 학생들은 수업 전에 <<주교재>> 해당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p>				
참고문헌	<p><<주교재>> 박영옥, <<철학으로 대중문화 읽기>>, 이룸, 2003. <참고문헌> 도널드 톰슨(김민주, 송희령 옮김), <<은밀한 갤러리>>, 웅진시크빅, 2010.</p>				

철학아카데미, <<철학, 예술을 읽다>>, 동녘, 2006,
최도빈,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 예술>>, 아모르문디, 2012.
강의가 사라지고 하브루타 수업방식이 도입됨.
성대경, 한국 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2000